

국보급 고려동종 포항 퐁魚池서 발견

제작연도 명문·비천상등 선명... "내소사 종보다 섬세"

고려 고종3년에 제작된 국보급 청동범종이 지난 1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을 향사리 오아사알 오어지(吾魚池)에서 발견됐다.

이 청동범종은 영일농지개발 조합이 오어지 준설작업을 하

던중 지난 16일 오후 포크레인 기사에 의해 발견 포항시에 신고됐다. 발견된 종은 높이 92cm 직경 60cm 둘레 180cm 무게 5.5cm 규모 중 아래부분에 고려 고종3년인 정유4년(1216년)이라는 제작연대와 제작자·제작

배경을 알려주는 30여 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음도 확인됐다. 내소사 고려범종(보물 제 238호)과 유사한 형태인 이 범종은 음관과 용이 상부에 조각돼 있고 몸통에는 비천상이 양각돼 있으며 '올마니반메홍'이란 글씨도 양면에 양각돼 있다.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이 그대로 보존된 이 종이 오어지에서 발견된 것은 일란 등의 난세에 도난·훼손을 피하기 위해 물에 묻어두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지만 자세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재관리국 한 관계자는 "매설문화재이므로 경상북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문화재계의 한 직원은 "현재 오어지 준설공사는 중지된 상태이지만 추가 발굴계획은 예산이 없는 등 여건상 손 댄다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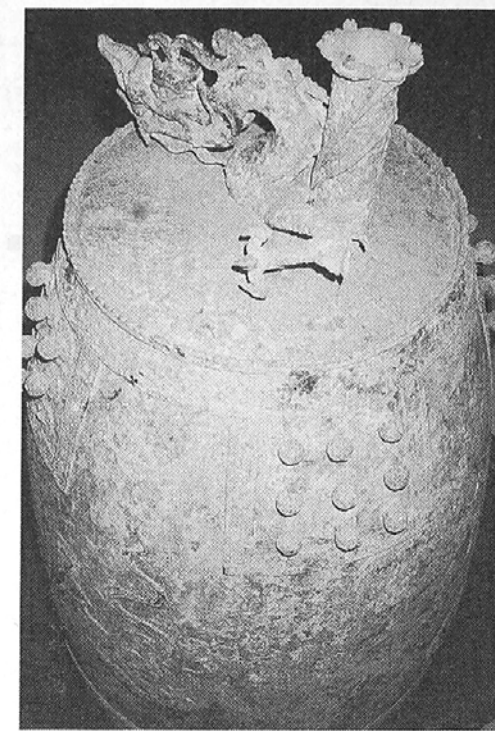
황수영박사(전 동국대총장·문화재전문위원)는 이 종을 보고 "내소사 종보다 훨씬 섬세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국보급이다"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오어지의 추가발굴은 이번에 발굴된 범종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면 진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고려대의 종이 발견된

포항=이윤호 기자

◇지난 16일 포항 오어지에서 발견된 고려 고종3년 제작 청동범종. 비천상등 문양이 섬세하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해 국보급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민속무용 공연 하와이 불은사, 내달 2일



이와관련 문화재관리국 한 관계자는 "매설문화재이므로 경상북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문화재계의 한 직원은 "현재 오어지 준설공사는 중지된 상태이지만 추가 발굴계획은 예산이 없는 등 여건상 손 댄다고 있다"고 밝혔다.

달마도의 매력은 경전이나 자식에 얽매지 않고 자오(自悟)를 자각하고 환기시키는 수행법으로 벽관(壁觀)을 가르친 그의 이미지가 그림 가득 들어찬데 있다.



◇14세기 元代의 달마도·작가미상

달마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책이 나왔다. 원광대 최순택교수가 최근 펴낸 <달마도의 세계>(학문사)가 그것. 최교수는 동양의 미술사를 연구하며 선화와 달마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선화연구>를 펴낸 최교수가 다시 달마도만을 내용으로 묶은 <달마도의 세계>는 85장의 달마도와 '달마도의 역사적 전개' '달마도의 내용과 형식'이란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도판은 일본 가미쿠라시대 원광대 최순택교수 '달마도의 세계' 펴내

달마도 모든 것 '한눈에'

당·송대 작품등 고본 85점 수록

(14세기) 때의 「노엽달마도」(작자미상), 명대의 정운봉이 그린 「달마조강도」(1574년), 남송대의 「홍의 달마도」(1271년경·작자미상) 원대(14세기)의 「노엽달마도」(작자미상)등 고본들이 실려있다. 또 근현대 선승들의 작품과 1430년에 일본승려 슈케이(集慶)가 제작한 달마사의 존상도도 소개되고 있다.

최교수는 달마도를 크게 다섯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달마노엽도해도(達磨葉圖海圖)'는 인도승 달마가 중국땅으로 건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달마 벽관도(壁觀圖)'는 달마의 9년에 이르는 면벽수행을 그린 것. '해가반비도(慧可斷臂圖)'는 2조 해가가 달마 앞에서 팔

뚝을 잘라 보이는 유명한 내용이다. '반신의 달마상'은 달마의 눈과 얼굴이 부각된 상반신도이며 '적리달마도(隻履達磨圖)'는 지팡이에 신한 짚을 매달고 떠나는 달마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달마도는 돈오전성의 깨달음을 증시하는 선종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한 최교수는 "때문에 채색과 보다는 수묵화 양식이 선호됐으며 붓의 놀림도 발묵법(潑墨法)과 감발법(減筆法)을 발전시켰다"고 적고 있다.

'달마도의 세계'는 내년 초에 일본과 독일에서도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화엄사 각황전등 209점 복원

전남도, 2천년까지

전남도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7백14억3천1백만원을 들여 보림사 삼층석탑 석등(국보 44)·화엄사 각황전(국보 67)·송광사 하사당(보물 263) 등 2백9점의 문화재를 복원·보수하는 '문화재 보존 중기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난 13일 도에 따르면 9월 22일~10월15일까지 7백16점의



◇경봉스님의 유묵 '청정'

근현대 고승 서화전

청주BBS 기금마련

불교청주방송국 개국을 위한 원로스님 및 종전작가 초대전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조계사내 불교회관(총무원 건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미 입적한 근현대의 고승 청담 경봉탄허 무불스님의 유묵을 볼 수

자동차전시장서 보는 만다라

석도열스님 작품전

자동차는 매카니즘이 불교그림과 만났다.

만다라를 주제로 한 유화작품 25점이 자동차 전시장에 걸려 매장의 갤러리를 이룬 곳은 대우자동차 종로지점(732-5391)이다. 안국동 네거리 육교 옆의 이 자동차 매장에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석도열스님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이미 일본등지에서 이같은 이벤트가 자주 등장했으나 서울에선 보기드문 행사다. 이 행사는 대우그룹이 기업의 문화운동 참여 일환으로 각 지점에 문화행사를 권유함에 따라 이

불심시심 <38>

비로봉에 올라

秋風健脚上巖虛 (추풍건각상비로) 건강한 다리 가을바람에 비로봉 오르니
雲外青山手可摸 (운외청산수카모) 구름밖의 푸른 산 손으로 잡을만하다
逸興發時天共遠 (일흥발시천공원) 멋있는 흥취 일때는 하늘도 함께 멀더니
此身遊處月同孤 (차신유처월동고) 이몸 노니는 곳에 달과함께 외롭다
日斜萬壑猶明滅 (일사만학유명멸) 햇살빛긴 온갖 골짜기 명암이 엇갈리고
嵐寺千峯遞有無 (암사천봉유무) 아지랑이며 씻기는 봉우리는 유무로 교체된다
下視八荒如蟻垤 (하시팔항여미질) 내려다보는 천하 개미집 같으니
不堪回首洛陽都 (불감회수낙양도) 머리들려 장안의 도성 보기가 난감하구나 (불감회수낙양도)

이 시도 기암대사의 시이다. 지난회에 이어 금강산의 비로봉을 올은 시를 하나 더 소개해 보았다. 지난번 금강산의 시가 금강산 전체를 상하의 공간에 두고 올은 것이라면, 이 시는 거기에서 가장 높다는 비로봉의 정상에서 굽어보는 절경이다. 계절도 가을의 단풍절이라 사실과 어울릴까 하여 소개해 본다.

가을 바람의 선선함에 길을 나서는 건강한 발걸음이다. 금강산에서도 제일 높은 비로봉에 올랐다. 산은 구름을 뚫고 솟아 올랐다. 금강산이라도 잡힐 듯이 가까워진 하늘이다.

산에 오르느라고 생각할 때의 그 멋진 흥취는 하늘 달을 뚫한 유원함이었다. 하늘이 멀어 멀다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흥취가 더 유원했다. 그래서 오를 비로봉의 정상이다. 그러나 이 몸이 오를 이 곳은 달과 함께 외롭다. 달은 지상에서보다 분명히 가까워졌지만 가까워진만큼 달은 더 외로워 보인다.

다. 더 하늘 멀리 외로이 떠 있기 때문이다. 정상에 오를 나 또한 정상이라는 그 극한 점은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더해 준다.

굽어보는 하계. 온갖 골짜기에 비치는 햇살의 비침 가리움에서 명암이 서로 대조되는 일만 골짜기의 만학이다. 이러한 명암이 바로 하계로 상징되는 인간세상의 인정을 태일 수도 있다. 아지랑이는 수시로 피어오르다 사라진다. 이 기발하는 아지랑이 속에 있다. 사물을 이렇듯 대칭으로 보는 선사의 표현은 그 깨우침의 정도를 작의적으로 제시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시선을 종합할 때 아무리 넓다 하는 천하도 개미집의 한 줄 흙일 것이니 하늘의 도성의 시끄러움이 가로소로 수 밖에 없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음합창단 창단 10년 기념무대

내달 15일 세종소강당... 수확찬불가등 공연

불음합창단(단장·김동현)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무대를 꾸민다. 2부에서는 85년 9명의 주부불자로 시작돼 현재 4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 합창단의 기념무대는 다음달 15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막을 연다.

1부에서는 이영호씨의 지휘와 리수향·이희숙씨의 반주로 작곡한 불교음악의 노래를 모아 부른다. 김용호씨의 '나의 연꽃' 서정업씨의 '연꽃피는 날' 한상림씨 작곡 '꽃고양' 이길상씨의 '나무의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료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목표 기도에 중입니다.

眞氣

*眞氣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들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3%, 심장질환자 92.7%, 위장질환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1.3%, 고혈압 77.8%, 관절염 69.5%의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각 등 대상으로 중의약복합을 적용 시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84%, 소화불량 88.3%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2. 2. 17)

「春川産 白玉산」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명당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吳是空 小堂 777-0105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 1) 불교 종단의 일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학회 안내
-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점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63-12-023151 서울신도은행 15501-2537606
의환은행 150-13-11760-5 세신부주회 011965-0066025
국민은행 832-24-0006-924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921-6669, 6670

대중불교는 울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비웃음을 더욱 크게 퍼는 일을 할 것입니다.

활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추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곰은소리
불가의 잿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잿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석목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깊은 품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말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담이야기, 불교와 민속, 열과 문화, 메시지를 찾아서...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끝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과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